

지금 하나님께로 열심을 내라

(이사야 55:6-13)

박 성 복

(서울 서문교회 담임 목사)

바로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이며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바울은 고후 6:1-3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거나 듣는 이 시간에 벌써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계십니다. 성경이 있는, 그 말씀이 들리는 거리에 지금 그 분이 다가와서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답답하게 하나님을 만날 만한 시기와 가까이 계시는 때를 문제삼고 지연할 때가 많습니다. 또 마귀의 이러한 미혹 속에서 “지금”이라는 자신의 인생을 놓치는 일이 많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약 4:14-15) 이와 같이 “지금”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 인생을 생각하는 사람은 방향

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시인은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시 31:15)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향하며 그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윗은 또 역대상 29:11-12에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께로 향하여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주재자되신 이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만나 주시며 가까이 해주신다는 것은 놀라운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 7절에는 “.....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고 말씀했

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평안의 약속이 있습니다. 산천이 노래하며 맞을 것이며 잣나무와 화석류가 그 가시나무와 질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12-13절).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 같이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10-11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부름이니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가난한 자에게까지 미치는 복음이어야 참 복음이 되듯이 여기 악인과 불의한 자에게까지 미치는 은혜의 복음 역시 참 복음입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린 자는 이 한량없는 긍휼과 인자하심의 물을 길어 먹게 됩니다. 지금의 방향 전환의 지체(遲滯)가 몇 년의 지연을, 아니 영영 기약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지난 세월의 지체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로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찾는 사람처럼, 부르짖는 사람처럼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악인이 그 길을, 불의한 자가 그 생각을 버리듯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는 구체적인 청산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자유에로의 탈출입니다. 놀라는 회복에로의 도약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듯이 죄는 감미로왔습니다. 금단의 열매는 더욱 금단의 열매를 두고 우리의 호기심은 발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와서 그 길과 그 생각을 버리는 것은 열심 아

니고는 아닙니다. 비와 창수와 바람에 무너짐이 심했던 집을 고치는데는 열심히 고치는 것만이 필요하고 절박합니다(마 7:26-27).

성령께서 계 3:19에 말씀하시기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던 라오디게아 교회에의 처방이었습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던” 그들에게는 처방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생활과 가정을 위해서는 필요로 하는 것이 그렇게도 많으면서 주를 위해서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는, 주의 교회를 위해서는 나는 부족한 것을 모른다 하는 사람들은 이 열심과 회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열심과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 분이 지금 바로 문 밖에 와서 서서 계십니다. 그리고 벌써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쓸개 빠진 사람처럼 아무 데나, 청한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청하기까지 하면서 얼마나 엉뚱한 것을 찾으며 다녔습니까. 찾아오신 주님은 밖에 세워둔 채, 그렇게도 더불어 먹고 먹는 친근한 교제를 원하시는 주님은 밖에 세워둔 채, 그 분과 식탁을 함께하는 그 놀라운 세계를 버리고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계 3:20). 지금 하나님께로 열심을 내십시오.